

174.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

(41) 수분으로 형이 일그러지는 면과 폴리에스터 교직천

□ 수분으로 형이 일그러지는 면과 폴리에스터 교직천

해설)

- 소비자가 셰퍼드 체크(shepherd check)의 재킷을 구입 후, 처음으로 입고 외출한 날에 밤이 되어 갑자기 소나기를 맞아 흠뻑 젖었음. 재킷이 말랐을 때에 전체의 실루엣이 뒤틀려 착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세탁소에 상담해 프레스 작업을 했지만, 전체가 뒤틀려진 현상은 개선되지 않았음.
- 재킷의 조성은 면 68 %, 폴리에스터 28 %, 폴리우레탄 4 %로 구성되어 있었고, 천의 구조적인 특징을 실체현미경으로 관찰하면, 경사는 모두 면, 위사는 모두 폴리에스터인 것으로 나타났음. 또한, 폴리우레탄 섬유는 가로 방향 즉 면사에 혼용되어 있었음.



- 이 경우 면과 폴리에스터와의 교직 천으로서 수분에 의해서 영향을 거의 받지

않는 폴리에스터에 비해 수분에 의해 팽윤·수축하는 면사가 안정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비에 젖은 후, 건조될 때 세로 방향의 수축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었음.

- 이 제품의 경우 면/폴리에스터 교직물로서 물세탁이 가능한 소재이지만, 땀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물세탁이 매우 곤란한 소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음.

♠ 자료출처 : 송중욱 역,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, 한국세탁업중앙회, 2011

www.textilecare.kr